

News

기업대출도 고정금리 쏠림현상… 비중 32.5%

디지털타임스

신규취급액 기준 기업 대출 중 고정금리 비중은 8월 32.5%로 전월비 5.5%p 상승… 작년 8월과 비교해도 3.9%p 상승한 수준

미국 연준의 긴축 전망 강화되면서 차후 금리 추가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 이미 시중은행에서는 고정금리로 대출 받는 기업 늘어나는 추세

여전채 금리도 껑충… 돈 구하기 힘든 카드사들

디지털타임스

카드사들, 자금 조달원을 CP와 ABS 등으로 다각화 중… 국내외 기준금리 인상 여전채 금리도 덩달아 상승하며 자금 조달 환경 악화

삼성카드, 신규 차입금 평균 조달 금리가 올 2분기 2.96%로 전년동기대비 1.53%p 상승… 조건 나빠지자 CP, ABS, 해외 채권 등으로 자금 조달처 확대

한은 빅스텝 유력…가계부채 이자 6.5조 불어난다

이데일리

기준금리 0.50%p 인상되면 전체 대출 이자는 총 6조 5,000억원 증가… 늘어난 이자 중 3,000억원은 취약차주 둘이고 나머지 6조 2,000억원은 비취약차주가 부담

이번 기준금리 인상되면 은행들의 대출금리도 함께 오를 것으로 예상…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가산금리를 조정하고 있으나 눈에 띄게 줄어드는 수준은 아니야…

PF 부실 우려 속에도 "정상 사업장엔 공급" 당부한 금감원…왜?

뉴스1

금융감독원, 지난 7일 저축은행, 여전사, 증권사와 '부동산 PF 관련 업권별 간담회' 실시… 정상적 사업장에 대해서 원활한 금융지원 실행하라고 요청

리스크 큰 상황에서 당부한 것은 이례적… 금융권 안팎에서 제기된 '연쇄 도산'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치로 풀이

손보사 보험 상품 리스크 10조…장기보험만 6조 '부담'

데일리안

국내 손해보험사, 보험 상품 관련해 떠안는 리스크가 올 상반기 말 기준 총 9조 8,112억원으로 작년말대비 3.6% 증가

삼성화재, 보험위험액 2조 531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0% 증가… KB손보, 1조 3,378억원… 메리츠화재, 1조 2,128억원… 수익성으로 장기보험 영업은 지속

카카오손보 영업개시 임박…어떤 보험 상품 나올까?

헤럴드경제

카카오페이손보, 10월부터 영업 개시하고 첫 상품 내놓아… 구체적인 영업개시일과 상품군에 대해서는 함구… 다만 금융안심보험, 여행자보험, 휴대폰 파손 등 미니보험 거론
업계에서는 미니보험으로 출발해 수익성이 있는 장기보험과 자동차 보험으로 영역 확대할 것이라는 전망 지배적… 이달 중 시작예정인 빅테크의 보험비교추천서비스와 맞물려…

증시 침체기 중소 증권사, 스팩 상장 통해 활로 열기

굿모닝경제

올 1월부터 9월까지 스팩 합병으로 상장한 기업 총 10개사… 하반기 중에는 7개 기업이 추가 심사 승인 받았으며 심사 진행 중인 기업도 8개사에 달해…

스팩 관련 두각 나타낸 증권사들은 중소형사들이 많아… 보유 자본 격차로 IPO 경쟁에서 불리해 스팩 상장에 힘써왔기 때문… 올해 10곳 중 5곳이 중소형사 스팩

NH선물서 7조 규모 '수상한 외환거래'… 선물·증권사도 조사대상

머니투데이

금감원, NH선물에서 50억 4,000만달러 규모의 이상 외환송금 거래 발생한 정황 인지해 현장검사 착수… 최초 계좌 개설 시기는 2012년 7월로 파생상품 거래한 것으로 보여…

2019년 이후에는 가상자산 차익거래를 주로 한 것으로 판단… 김치프리미엄 등을 노린 차익거래 목적으로 추정… 관련 선물사와 증권사에도 가능성 존재시 현장검사 예정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